

2015년 8월

Paraguay

# 고현목 변성희 선교사 선교소식



Ko, Hyon-Mook P.O.Box 2910, Asunción-Paraguay / E-mail : pablokopy@gmail.com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5월 말 교회 마당 한 쪽에 있는 뽕나무 가지를 몇 개 잘라서 다른 곳에 꺾꽂이를 했더니 7월을 지나면서 벌써 새로 싹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인 파라과이의 겨울 시즌에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일들과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 **단기선교사역** ■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겨울에도 페이스빌 교회(현승헌 목사님 시무)에서 단기 사역으로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이발과 의료, VBS 등으로 이뤄진 오후 사역과 함께 저녁 시간에는 현지 교인들과 함께 하는 예배와 세미나, 가정교회 방문을 통해서 사역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선교 현지 경험을 얻는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줄,  
머리 갇아 주세요,  
간식 주세요

양쪽 밤에 펼쳐지는  
작품의 세계  
“페이스 페인팅”



찬양과 만들기,  
너무 즐거웠어요.

“적지 않은 평균 연령”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섬기고, 때때로 파라과이를 즐길 뿐 아니라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놓치지 않고 받기도 하는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겨울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기쁨과 보람, 그리고 위로와 격려 그 자체였습니다.



선교팀을 위해 축복하는 현지 아동청소년들



또한 지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저희에게 새로 영입된 폼빠니아 7 지역의 예배처에서 현지교인들과 함께 했던 예배를 통해서는 겸손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먼 이곳까지 오셔서 기쁘게 섬겨 주신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알따르 파밀리아르(으빠네 쟈뜨로) 교회의 헌당예배 ▣



지난 7월 19일 주일 오후, 알따르 파밀리아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페이스빌 선교팀과 으빠네 지역 현지인 목회자들, 그리고 아직은 미약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소중한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마련된 예배당에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될 그 날을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지어진 예배당에 필요한 의자를 위해 귀한 후원이 있어서 이제 조만간 의자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헌당예배 찬양 ↑  
← 성경학교 시간

↑ 축하와 감사 (이경숙 집사님)  
← 감사패 전달

## ▣ 산로렌소 시장의 화재 - 그 이후의 이야기 ▣

부활 주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4일(토) 발생한 시장의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술미나' 성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7월 5일에 한인 교회에서 주최한 바자회를 위해 토레 푸에르떼 교회에 갔을 때 만난 그 술미나 자매에게 “내가 가는 곳마다 당신 이야기를 간증으로 한다”고 했더니 그가 제게 정말 놀라운 간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시장에서 노점을 시작해서부터 가게를 사고 창고도 마련하기까지 지난 13년 동안, 매일 매일 시장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 하나같이 외면하고 비웃기만 할 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화재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겸손해지고 하나 둘씩 열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들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 크게 낙심하는 자기 남편에게 “낙심하지 맙시다,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반드시 어떤 뜻이 있으신 때문이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맙시다.”하면서 격려를 했었는데, 그 완강했던 시장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좋은 일이 있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텐데요...” 하며 기뻐하는 한편으로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술미나 성도를 저는 그저 두 팔로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마음과 각오로, 그런 자세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곳 파라과이에서 이런 귀한 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상 마음과 손길을 모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며 소식을 가름합니다.

2015년 8월 6일 주안에서 고희목, 변성희 선교사 올림

♥ 기도제목 ♥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토레 푸에르떼 교회에 주신 교육 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교실 건축 등의 시설 마련 뿐 아니라 토레 푸에르떼 교회가 그 비전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 수 있기 위해서)
2. 알따르 파밀리아 교회(으빠네 쟈뜨로)의 로메로 목사님이 신실한 사역자로 목회에 더욱 힘쓰도록...,
3. 파라과이의 교포 1.5세 2세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고 선교의 소중한 자원(일꾼)들로 자라도록...,